

buddhanews.com

조그만 거 가지고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을 걸려고 하는데 입춘 축원을 안 올리고 내려온 것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전부 차에 타고 차 문을 닫은 상태에서 '아이, 뭐 이번 한 번은 빠질까?' 하다가 '아니지, 할 건 해야지!'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무처로 다시 올라와서 접수를 하고는 내려왔는데 처음에 차를 탈 때는 그냥 탔는데 접수를 하고 차로 내려와서는 저도 모르게 오른쪽 뒷 바퀴를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바퀴가 많이 빠진 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날이 구정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날 카센터에서 문을 열겠냐?'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바로 여기 선원 앞에 있는 카센터가 문을 열고 있어서 거기 갔어요.

저는 평소엔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차는 주로 제 집사람이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카센터에 가 보니까 바퀴 네 개 가운데서, 오른쪽 앞바퀴는 바퀴가 많이 빠졌고 뒷바퀴 두 개가 다 못에 찢려 있었어요. 그날 제가 선원에 참뵈다가 금양에 있는 저희 조상님들 탑공원에 들배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상태로 그냥 고속도로로 갔으면, 저는 또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 대형 참사가 날 뻔 했었습니다. 그제 제가 차를 손보고 금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물질 보시기 물질을 매당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생각과도 관련이 되고 마음공부를 하고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어느 스님의 예화를 들어 지게로 나뭇잎 해 주는 것보다 마음 보시기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음 보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한데, 경제적 어려움도 벗어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 보기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르게 생각한 건지 어떤지 스님의 높은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스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한 바가지 주면은 이자가 늘어서 세 바가지가 될 거고, 한 바가지를 훔쳐 갔으면 세 바가지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천원적으로 그렇게 되어요. 한 바가지를 주면 세 바가지 오지만, 예를 들어서 애깁니다. 한 바가지를 훔쳐 갔다면 세 바가지가 외려 손해가 난다 이런 뜻이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으면 채워 주고 없으면 채워 주고 할 수 있는 자기 그 보배가 모두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부터 자기 거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거를 물질로서 훔치려고 한다면 그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정말입니다. 아상이나 인상이나 수자상, 이런 상이 많아서 남을 업신여

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하죠, 또 다른 것들도 그래요.

그전에는 가끔 시장에 나갔는데 지금은 시장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뭐 나가도 안가고 해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식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보나 앉아서 보나 들어와서 보나 뭐 그냥 다니기가 그렇게... 예전에 너무 다녀서 그런지 그렇게 가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말입니다, 시장에 가 보면 어린애를 업고 말라서 시들시들한 야채를 요만큼 놓고 파는데 그거는 깎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러면 스님은 왜 시들시들한 걸로만 찾아다니며 사느냐고 야단입니다. 또, 아, 못 먹을 걸 왜 사느냐는 거죠, 깎지도 않고, 외려 더 주면 더 찢기 그걸 왜 깎습니까, 글썽. 그리고 내 돈입니까, 그게? 왜 그런 짓을 해요? 인심이나 쓰지, 내 돈도 아닌데, 하하하... 아, 여러분의 돈도 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아니고요. 갈 때 가져갈 거라면 자기 재산이지만, 갈 때 가져가지 못할 거라면 자기 게 아니예요. 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변 반드시 몇 곱쟁이 붙어서 온다는 거죠. 만약에 공을 저 벽에다 친다면 거기에 박히지 않고 공이 튀어 오잖아요. 바로 그 공과 같은 겁니다. 치면 다시 날아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야지, 없는데 줄 게 어딨어?' 이러지마는 마음이 넉넉하면 저절로 그렇게 주게끔 생깁니다.

부모네들 천도를 하고 싶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이 생기면 꼭 천도를 하겠다, 부모님들 천도를 꼭 해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다 할 수 있게끔 생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있다가 '아유, 스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생겼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지내겠다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재사를 지내고도 또 두 번 더 지낼 만큼 남았으니 그건 애들 학비를 대 준다? 그래서 "그거 참 잘했다." 그랬죠. 아주 받을 수가 없는 돈인데 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옛날에 아버지가 참 잘해 줬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어려울 틈에 쓰라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너무 쪼들게 사시지 마시고 평탄하게, 항상 여유 있게 사세요 근본자리에 다 맡기시면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가족을 끌고 기어다니면서 뭘 팔죠. 우리가 뭐 때수건이 없습니까. 스님들이 척척 사다 주죠. 그래도 때수건 하나를 사고서는 그냥 누가 볼까, 미안해할까 봐 몇만 원이라도 요렇게 푹푹 뭉쳐서 거기다 천원짜리로 싸서 주고 오죠. 그리고 또, 돈 없으러 그릇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남이 보이면은 '저 좋은 얼마나 회퍼워서 남의 시종돈 받아 가지고 저렇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물레 그걸 주고 오느라고 애를 씁니다. 또,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남한테 잘났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봤을 때 당장 불쌍하니까, 바로 옛날의 내 모습이니 내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러면 앞잡아 볼 것도 없고,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아이, 전자의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너도.' 그러면 웃음이 나고, 나중에는 그쪽도 나와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도리가 아니죠. 부처님 공부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오는 게 있었습니까? 그래, 죽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곳간에는 아무 것도 없고 짚단 하나밖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어린이에 낳을 때 짚단 하나 준 거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거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제. 거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준 것이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잘살게끔 통장을 해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식을 당대에 잘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요...

질문자(2남): 일체 만법을 나누어서 설해 주시는 스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님에게서 설하시는 법문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어찌와 오늘과 내일을 잠깐 생각해 봤었습니다. 제가 한 마음 법을 만나지 않고 계속 전자와 같이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제 자신을 돌아봐보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있으니 돌려서 그 용광로 마음자리에 놓아라.' 이렇게 설

하셨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나 '도대체 어떤 것을 놓으라고 할까?' 항상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뭘까, 뭘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 생각나는 모든 것 자체를 그 마음자리에다 돌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실직고 한다면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것부터 놔뒀습니다. 좋은 것부터 놓다 보니 '아, 이것은 아닌데, 모든 것을 다 분별하지 않고 놓으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는 그 자체를 그 자리에다 다 돌려놓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진 제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히 큰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항상 일체제불과 더불어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체험담 아닌 체험담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사의 지국에 새벽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들 IMF시대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신문 첫창에 그래프로 표시돼 있는 환율을 보게 됐

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1달러에 얼마다, 내일은 1달러에 얼마다 하는 것들을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분개했었습니다. '이걸 언론에서 내보인다면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불안해 할 텐데...' 하는 것이 처음 생각이었는데 '아차, 이런 생각이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돌리다면 그 또한 큰 작용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대 가지고 새벽 1시엔 항상 신문을 읽는데 접을 때마다 내 마음 깊숙이, '이 환율이 아무튼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발원하면서 항상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환율 그래프를 계속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분명히 현 환율은 굉장히 높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환율이 내려가야지 않겠느냐.' 하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별이 되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발원하다 보니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또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이 어쨌든 간에, 어떤 법을 응용해서 돌아가는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스님께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십사 하고 그러지만 저는 스님에게서 백 년 천 년 항상 마음으로는 사시리라 생각하면서 언제나 끊임없

이 나눔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 하고 내려가 되겠네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영혼의 근본은 항상 살아 있기 때문에 이웃 간이든지 누구든지 남들을 다 도와줄 수 있고, 9대손이든 10대손이든 전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너무 쪼들지 마시고 평탄하게 항상 여유 있게 사세요. 다 맡기시면 여유가 있어집니다. 거기가 아무리 멀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두드러지지도 않고 깨내서 만날 써도 쪼들지도 않는 겁니다, 샘물 나오듯이.

질문자(3남): 스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스님, 저는 광주지원 스님들과 각 지원 스님들, 그리고 스님님께서 마음을 내 주셔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 20일, 2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군이라는 곳으로 수행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행 길에 오르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마음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바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음 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법우님들과 처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그래요, 여러분이 다 갖추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불성이 있어서 여려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불성이 있어서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불성이 있어서 만법을 들이고 내도 손색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거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불성 하나가 그렇게 여려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요. 진짜! 마음은 체가 없고 너무나 많아서 이 허공에 꼭 차듯이 그렇게 많이 차 있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많아서 없는 게 마음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쓰라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나쁘고 좋은 걸 본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할 거 없이,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 좋은 대로 써라 이거죠. 잘해요.

* 위 법문은 1998년 4월 5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든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궁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효양의 열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용도와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색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색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호기과강판, 일반기과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사찰 (전문시공),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1쌍만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짐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제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지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 스님 **만 해** 합장